

프랑스, 라팔 조기구매 고려중

프랑스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98년 국방예산안에서 라팔의 조기구매승인을 고려중이다. 국방부 장관인 Alain Richard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프랑스 의회는 98년도 국방예산중 라팔 구매를 위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에서 물량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UAE 등은 유러파이터와 라팔 두기종을 놓고 고려중이며, 현재까지 동 기종은 프랑스 해군으로부터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13대의 주문만 받아놓은 상태이다.

프랑스 정부는 97-2002년 사이에 국방예산 약 28억불 규모로 48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계획은 수정되어, 294대의 라팔 프로젝트(60대 해군, 234대 공군)중 공군은 2005년말에 해군은 2001년 중반에 공급하기로 연기 되었었다.

중 파키스탄 경전투기 공동개발

중국과 파키스탄이 그동안 프로

그램 진행의 부진에서 벗어나 FC-1 경전투기 개발을 위한 사업 의향서에 서명했다.

수퍼 7 프로그램 후속인 단일좌석형 청도 FC-1 전투기는 양국 공군배치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우선 동기종 약 150대를 주문기로 약속했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체결된 동 의향서는 기체개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기종의 목업은 지난 2월 싱가포르에 어쇼에 전시된 바 있다. 베이징소식통은 항공전자 및 레이더부문의 입찰은 금년 중반경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톤급의 청도 FC-1기종은 다목적 펄스도플러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이다. FC-1는 레이더 유소미사일 뿐만아니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고려되고 있으며 2005년 경에 실전투입예정이다.

한편 청도사는 FC-1개발에 러시아 MIG MAPO사 및 MIG-29dnk RD-33엔진을 생산하는 클리모프(Klimov)사로부터 설계 지원을 받았다.

美, 그리펜기종 판매지지 낙관론 우세

JAS39 그리펜 기종을 남아공에 판매하기 위한 스웨덴의 사브(Saab)사와 영국의 브리티쉬 에

어로스페이스사의 노력이 미국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그러나 양사는 조만간 이러한 문제점이 곧 해결될수 있다는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엔진을 포함한 그리펜 기종에 채택된 미국의 첨단기술을 남아공에 재수출하려고 하는 사브사의 요구에 대해 남아공 무기조달 에이전트인 암스커(Armscor)가 관련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협력업체들은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유엔의 무기수출 금지기간중 미국 첨단기술의 남아공 수출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그동안 무기수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암스커의 무기구매 금지조치는 동 에이전트가 미국의 수출법에 준수하는 내부절차를 새로 마련해야만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분야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및 이라크 위기 해결로 이번 협상에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남아공은 공군력 향상을 위해 그리펜 기종이외에 프랑스 다소사의 미라주 2000 및 독일 DASA의 AT2000 등도 고려하고 있다.

아에로스빠시알, 최대 상용 위성 제작 무게만 5톤 규모

룩셈부르크의 우주업체인 SES사가 프랑스 아에로스빠시알사에 세계 최대의 상용통신위성인 Astra 1K 제작을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000년 발사예정인 동 기종은 무게만 약 5톤으로 9개의 알카텔 안테나와 52개의 고풍력 Ku 밴드 그리고 2개의 Ka 밴드 트랜스폰더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선정된 Astra 1K는 그동안 갤럭시 11, 13, 14호에서 사용된 미국 휴즈사의 HS-702 스페이스버스와 경쟁에서 승리했다. 13kW의 출력으로 플라즈마 추력기로 약 16년의 수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SES사는 동 위성을 Astra 1B 위성의 대체 및 타위성의 백업용으로 사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에로스빠시알사는 SES사 이외에도 차세대 Tursat 2A 첫 위성 제작을 위해 Eurasiasat과 계약하기도 했다.

유럽 아리안 로켓 지구관측위성 발사

내년 중반 한국의 무궁화위성 3호를 실어나를 아리안 로켓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에 위

치한 유럽 우주발사기지에서 지난 24일 오전(한국시간)에 발사되어 프랑스 우주의 스폿4 지구탐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아리안 스페이스사 한국지사가 밝혔다.

이번 발사로 아리안로켓은 35회 연속발사에 성공했으며 스폿4 위성은 아리안 로켓으로 지금까지 발사한 8번째 지구탐사위성이다.

스폿4 위성체는 우주격탐사서비스를 위한 고선명 영상전송과 환경감시를 위한 중해상도 영상전송 소 제공 등 2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폿위성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단지내의 원격탐사연구실에서 지난 86년 발사된 스폿1 지구관측위성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어 한국과도 관계가 있다고 아리안스페이스사는 밝혔다.

러, 우주정거장 건설에 62억불

러시아는 향후 10년간 국제우주정거장의 건설 및 유지비에 약 62억불이 필요하다고 러시아우주



엔데버호의 차기임무는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이다.

국 유리 코프네프 이사가 밝혔다. 이중 약 30억불은 우주정거장 건설에, 나머지는 운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단기적인 우주정거장 건설비 충당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코프네프 이사는 장기적인 견해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은 미르정거장의 유지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국제우주정거장 건설과 관련 미국 NASA 및 참가국들과 지난 1월 29일 최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유럽우주국인 ESA는 동 프로젝트에 34억불, 일본은 35억불 그리고 캐나다는 10억불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NASA측은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및 유지에 약 30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1999년에 6개의 우주왕복선 제작 및 정거장 제작에 27억불의 예산을 책정했다.